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주) 10주년에 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KC가족 여러분! KC환경서비스가 올해 1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저희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KC환경서비스는 2000년 LG 건설에서 양수도 받아 FBC 액상 소각로를 운영하였고, 2002년 업계최초 KC코트렐의 기술로 Rotary Kiln Type 고품 소각로를 추가 건설 운영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던 회사였습니다. 2003년 공장에 화재로 인하여 우환이 겹쳤지만 이를 계기로 기존의 관례에 따라 움직이던 운영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였습니다.

#### KC환경서비스 이재영 부사장님

회사를 양수도 받은 후 내건 회사의 모토는 “동종 업계에서 최고가 되자!”입니다.

입으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니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2004년에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출 및 이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임하면서 3년 동안 임금동결에 불평 없이 따라 준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합병 시 서동영 전무님과 이태영 사장님께서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추어 주신 덕분에 2002년 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부임하고, 이강욱 부사장님(現 KC한미 대표이사) 그리고 이석구 상무(現 KC정림의 주재임원 겸임)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KC의 진취적인 문화를 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창립 당시 매출액 24억 원, 총자산 60억의 회사가 매출액100억, 총자산 250억의 회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토지 또한 5,000평에서 15,000평으로, 종업원수도 두 배 가까이 늘어 났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간의 끈끈한 동료애로 동고동락 하는 것이 KC환경서비스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인심이 좋아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여수,

시간 내시어 방문해 주시면 각별히 모시겠습니다.

특히 좋은 경치에 위치한 콘도를 구비하고 있사오니 미리 계획하시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임은영과장, 이메일 eylim@kc-enviro.com)

KC환경서비스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코트렐]이태영 사장님 WPCA 이사 선출

이태영 사장님이 이번 2010년 7월부터 3년간 WPCA (Worldwide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이사(Director)로 선출되었습니다. WPCA는 추천된 후보자들을 후원사들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사로 선출합니다. KC코트렐은 지난 2007년부터 WPCA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회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ALSTOM, GE Energy, Reinhold Environmental, SIMENS 등 세계 우수 환경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 협회로 자세한 내용은 <http://wpcaprojec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 [KC환경서비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2010년 7월 1일 KC환경서비스(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설립 당시 KC환경서비스는 LG그룹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소각로 회사였으나 현재는 여수산단, 전라남도, 더 나아가서 전국적 입찰에도 참여하는 소각로 회사로 발전 하였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는 회사근처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간소하여 치뤄졌으며 직원들 간의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KC그룹의 일원으로서, KC환경서비스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회사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C환경 서비스 운영팀 팀장 이찬성  
(chansung@kc-enviro.com)



케익절단식



직원 단체사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Cottrell China] 창립 8주년 행사**

지난 6월 24일 KC Cottrell China 사옥 5층 컨퍼런스룸에서 KC Cottrell(China) 창립 8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합작회사에서 100% 한국투자 법인으로 전환, 1천만 인민폐에서 2천5백만 인민폐의 자본금 증가, 직원 수 23명에서 현재 68명으로 증가, ESP 제조회사에서 다각화된 제품을 중국의 14성에 112건 생산&공급한 회사로 발전한 KC Cottrell China의 지난 8년 간의 행적을 간략하게 회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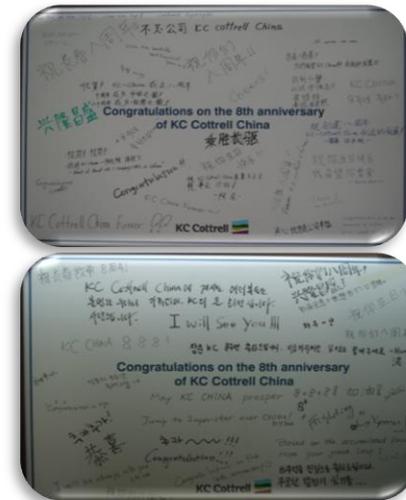
그리고 박승원 이사회 의장이 차순근 상무를 KC Cottrell China의 법인장으로 승진 발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사장님, 차순근 법인장, 위조우핑 사장과 박 이사회 의장이 차례로 지난 8년간 KC Cottrell China의 발전과 향후 KC Cottrell China의 발전 기대에 대한 축하 인사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준기 기획팀장이 KC그린홀딩스의 조직적 역할, 중요성, 사업개요를 소개하면서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 후, 직원들은 장춘의 쌍양 온천유원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온천, 수영을 즐기며 임직원간의 축하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KC그린홀딩스 이태영 사장님, 강준기 기획팀장과 여주희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KC그린홀딩스 임직원들께서 보내주신 2개의 대형 축하 메세지보드에 감사 드립니다.

KC Cottrell China Wu Chunling(cckcwuchunling@163.com)



▶ KC China 직원 단체사진



▶ 축하메세지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시계방향으로)이태영 사장님, 새로운 법인장 차순근사장님, 회의정경, 워크샵 후 식사, 박승원 사장님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안성유리] 안성유리 수익성 향상과제 High 5 Project 의 성공적인 종료에 즈음하여....



“High 5!” 혁신 프로젝트 성공적 완료  
 “수익성 향상, Clean 사업장 구축, 조직  
 문화 개선 및 인재육성”을 목표로.

전세계의 축제인 월드컵 사상 해외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와 함께 안성유리 또한 “High 5!” 혁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High 5!” 프로젝트는 “수익성향상, Clean 사업장구축, 조직문화 개선 및 인재육성”의 3가지 큰 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혁신프로그램으로서 이번에 2개월간 1 단계과정인 “혁신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270건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으며, 이 중 120건이 채택되어 향후 약 10개월간 실행단계를 통해 업무에 적용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꽃처럼...

본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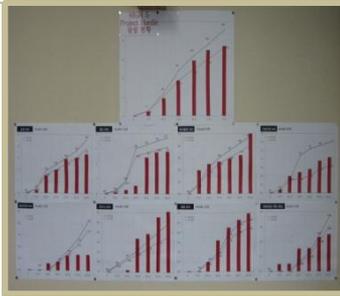
High 5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운 “High 5!” 프로젝트는 한결 더 단결된 팀워크와 함께 긍정적인 사고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안성유리 임직원들의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굳은 의지와 각오 덕분에 성공적으로 완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꽃처럼 안성유리는 앞으로 이 꺼지지 않을 뜨거운 열정으로 High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조와 혁신의 안성유리! High-5 ! Fighting!



울산SKC벤치마킹



주간허들달성온도계



5차 승인위원회



KCMS와 야간산행

목표 (Hurdle) 달성 현황

• Hurdle 14.5억원 대비 106%인 15.3억원의 Idea를 승인하여, 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 검증을 거쳐 101%인 14.7억원이 최종 채택.

CONTENTS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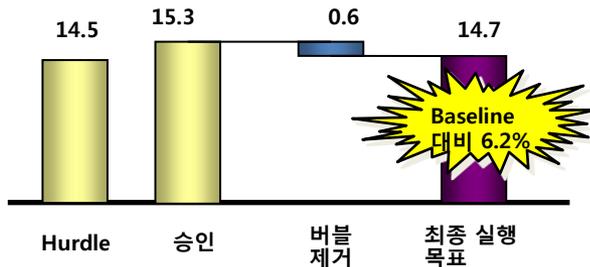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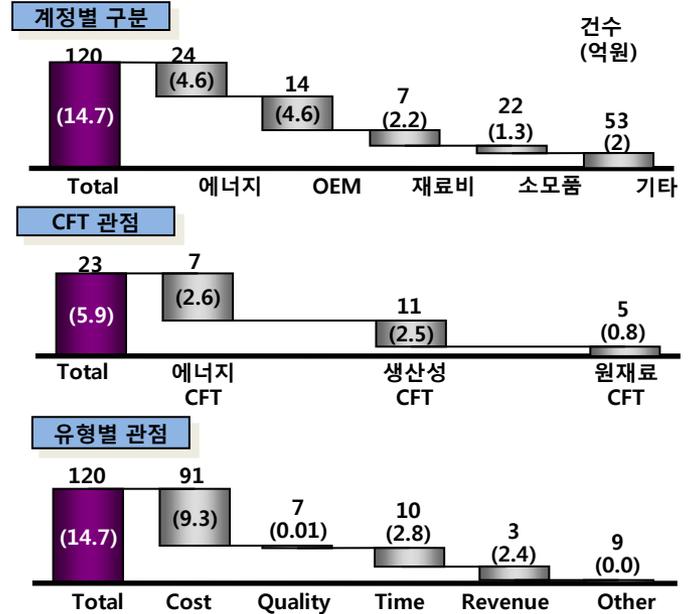
Idea 개발 현황



투자비 회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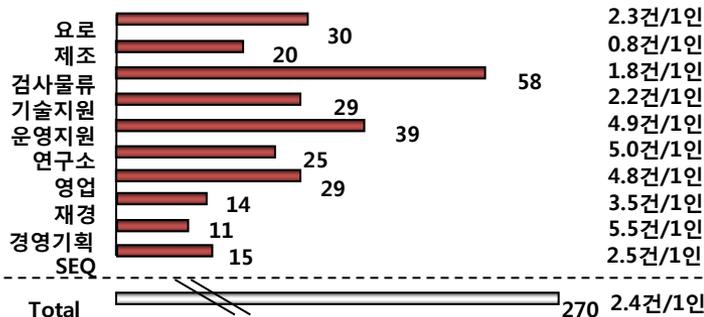
세부 아이디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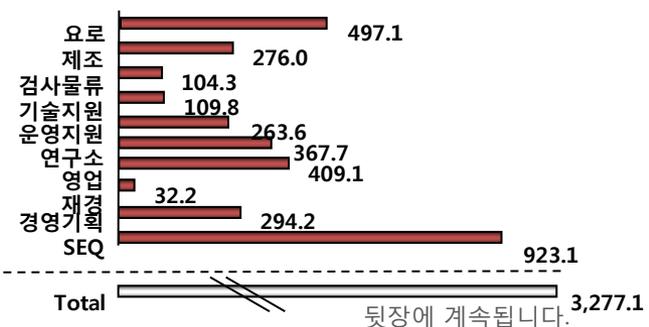
Idea 제안 참여 결과\* - 부서별

• 전사적인 참여를 통하여 32.8억에 해당하는 270건의 Idea 제안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제안 참여 건수 (단위 : 건)



❖ 제안 참여 금액 (단위 : 백만원)



\*가설을 구체화 하여 제안서로 작성, 제출된 기준 건수 및 효과임 자료 : 'High-5' 혁신 TFT

Clean 사업장 구축 – AWO (Action Work-out) 활동 소감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 “뿌듯함과 자긍심이 생겨 너무 좋은 경험이 이었습니다” “방치 상태인 기계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준거 같아 기쁘다”
-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후배들과 함께 청소하며 좀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즐거운 추억... 우리들 모두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을 깨우칠 수 있는 교육의 장 이었습니다”
- “‘뭐든지 마음을 모으면 이루어 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AWO에 대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AWO를...’”
- “‘이런 기회를 통해 부서간 반목을 없애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분기별로 시행 했으면...’”
-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섰는데 해 놓고 보니 이세상에 못할게 없다 싶다. “안성유리 “초” 인류기업으로 비상하라”

- “입사 이후 가장 치열한 청소 및 정비였다. 어름 계곡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다. 누구 하나 팀원에게 지시하거나 시킨 것은 없다. 임원부터 사원까지 서로 더 하려고 하는 협동심 조직체계의 이상향을 경험...”
- “치우고 닦고 칠하고...우리 회사 나름 깨끗한 곳이라 생각 했는데 구석 구석 손이 가야 할 곳이 너무도 많다. 아!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회사...정말 힘들고 짜증도 났지만 보람 있는 활동 이었다.
- “전 사원이 참여하는 1회성 활동이 아닌 안성유리 문화로 정착된다면...”
- “AWO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는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팀원 모두들 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부서원들과도 화합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AWO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한다는 것이 행복이란 걸 느끼게 됐고 현장 경험을 통해 덥고 시끄러운 곳에서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AWO는 TOP가 끝나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HIGH 5 프로젝트를 마치며...



2010년 4월 20일 kick off을 시작으로 안성유리 임직원들은 원가절감 수익성 향상 5% 이라는 목표를 위해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차 아이디어 제출 당시만 해도 우리가 목표한 Hurdle 에 50% 밖에 달성할 수 없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사가 지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1번의 academy 와 2번의 work shop, 3번의 brainstorming 을 거치면서

점차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모하는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총 270건의 아이디어 중 120건의 승인된 아이디어를 실행함으로써 그 성과를 체험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계승 발전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인 목표 달성으로 실행 계획이 진행되고 현장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합시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 중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하라! 뒤집어라! High-5! 짹!짹!짹!**

안성유리공업(주) HIGH ~5 프로젝트 CHAMPION  
노성구 (sgnoh@asglass.co.kr)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안성유리]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 개발 사업” 선정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는 2010년 정부시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인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중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절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제 녹색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 기술개발 과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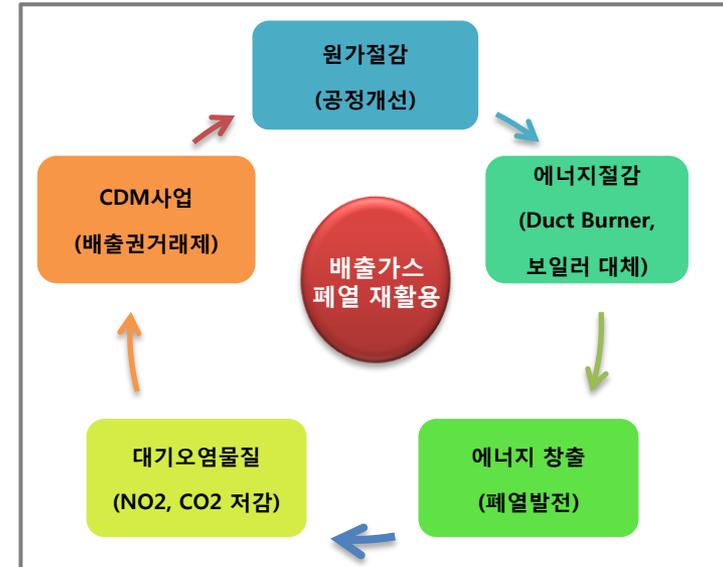
Glass 용해라인의 폐열 재활용을 통한 배출가스처리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공정개발

▷ 기술개발 내용 :

폐열을 이용한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개발 - 저탄소 친환경 SCR 승온 폐열을 이용한 Steam heater 개발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 1,740 tCO2

▷ 기술개발 기간 : 2010. 6.1~2011.5.31 (1년)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 배인규 주임  
(likbae@asglass.co.kr)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중부발전(주)와  
인증서 매매계약체결  
안성유리의 지붕을 반짝이는 태양전지 모듈로...**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발전 사업으로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며 KC코트렐 환경기업 이미지구축을 위하여 안성유리공업(주)와 한국중부발전(주)는 2010년 6월 15일 태양광발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계약기간 : 2010년 6월15일~2022년 5월(12년간)
- ◆ 발전방식 : 고정식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 ◆ 설치위치 : 사무동 지붕 및 공장동 지붕 2,830m<sup>2</sup>에 설치
- ◆ 용 량 : 178Kwh 년간 188,000kwh/년
- ◆ 판매단가 : 472원/kw당 , 년간 판매예상금액 92,500,000원
- ◆ 투 자 비 : 998,000,000원 예상  
(지붕보수 및 Sky Light 교체 비용포함)



안성유리 회사 전경(좌측상단) 및 설치위치 (노란상자안)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지원 오자영 차장  
(jyoh@asglass.co.kr)

**[KC네트워크 친선 풋살대회]**

2010년 남아공월드컵으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요즘 작년에 이어 6월 30일 늦은 6시 상암월드컵 풋살 경기장에서 KC 코트렐, KC삼양정수,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은 풋살 친선경기를 가졌습니다. 경기 진행은 리그전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으며,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접전 끝에 KC삼양정수의 2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출전한 선수 중에는 노익장의 활약이 돋보였고, 그 중 이기환 상무의 골로 인해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남아공월드컵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뛰어난 선수들 덕분에 6월의 마지막을 보다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KC삼양정수 지원팀 최은정(jjunghi18@syws.com)



선수인사



참석자 단체사진

[클레스트라 하우스] 목표대비 실적초과!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1913년 Earl F. Hauserman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파티션이 탄생하였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은 처음으로 이 신개념의 파티션이 설치된 건물중 하나이다  
 1961년 유럽 스트라스부르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유럽 자회사들이 지속 성장을 이루고, 1985년 대한민국에 자리잡게 되었다  
 1986년 구미에 공장이 설립되고 이후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어 2006년 아시아가 통합되면서 클레스트라 코리아의 고품행진이 시작된다



가자 코리아 200억! 아시아 400억!



최신뉴스 (2010.6)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우스만 구단에 입단  
 하우스만 젊은 피 수혈  
 (손소라, 권효정)  
 KC, 삼양정수 풋살동호회 팀과 경기  
 직원들 모두 열심히 뛰여주었고,  
 다음엔 기필코 우승하리라 다짐하였다  
 패인은 유니폼이었다는 후문...(홍생훈사)

빅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LG유플러스



LG CNS



SC Bank



Samsung Techwin



NHN



Samsung Seocho



Samsung eng.



New kori nuclear power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 이다  
 지난해 상암동에 이은 LG유플러스 사옥 2,200LM 를 비롯해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분당 NHN 사옥, SC제일은행,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삼성테크윈 등 대형 신규 프로젝트 수주로 상반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 서초타운, 삼성엔지니어링, LG CNS 또한 꾸준한 After Sales로  
 매출 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법인 또한 홍콩 Tamar 12,500LM 포함해 Customs HQ, Manulife,  
 일본 WhiteE&Case, Barclays capital, 중국 French Embassy, Microsoft,  
 호주 BSC, Servorp Parramate등을 수주해 2010년 전망이 매우 밝게 보인다

매출 및 이익 현황 2010.6 현재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은 올해 200억 매출, 20억 이익에 도전한다  
 그동안 매출 100~150억, 이익 10억 의 벽을 깨보겠다는 허두곤 감독의  
 강한 의지에 선수들은 이미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매출 120억, 불가능은 없다

이는 하우스만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시작 클린룸

클레스트라 클린룸은 전세계에서 지난 20년간 클린룸을 설계하여 개발, 제작, 설치 및 검증해 왔습니다  
 제약업체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프로젝트를 전세계에 걸쳐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는  
 설치 시에 최적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시공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 합니다  
 하우스만 코리아에서는 그동안 한미약품, 신풍제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휴온스, 바이오하트, 녹십자, 연세대병원, 서울대병원, 국립보건원 등  
 크린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Lodge Cottrell India] 사무실 이전 소식**

Lodge Cottrell India (인도법인) 이 다음과 같이 확장 이전하여, 2010년 7월 16일(금) 개업식을 갖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계사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이전일자 : 2010년 6월 12일
2. 이전장소 : Spaze Tower-B 5th Floor Suite No.502-504 Gurgaon-Sohna road, Sector-47. L.M:Near Malibu Town, Guraon 122002, India
3. 연락처 : 진준상 (+91-124-487-4803)

Lodge Cottrell India Pvt.Ltd 진준상(junsang@kc-cottrelll)



이전한 사무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세계 최고 친환경 제철소 조성 박차

환경개선 설비 3조 9586억원 투자... 2018년까지 7조원 운용

포스코가 환경개선 관련설비에 적극 투자해 세계 최고 친환경 제철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9년에만 설비투자금액의 10%에 달하는 2971억 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했으며, 현재까지 환경개선과 관련해 총 3조 9586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체 설비투자금액의 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포스코는 환경개선 투자로 2009년 현재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와 같은 3대 대기물질 배출을 2006년 대비 20% 이상 감소시켰다. 특히 광양제철소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60% 이상 저감시켰다. 포스코는 1997년 1.84kg이던 조강 1톤당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2007년 1.22kg, 2008년 1.11kg, 2009년 1.09kg으로 꾸준히 감소시켜왔다. 황산화물 배출은 1997년 1.47kg, 2007년 0.70kg, 2008년 0.76kg, 2009년 0.75kg이었으며, 먼지는 각각 0.44kg, 0.22kg, 0.16kg, 0.14kg 발생시켰다.

화학물질 배출량 역시 2004년 220톤, 2007년 145톤, 2008년 88톤, 2009년 67톤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한 결실이 있었다.

이 밖에도 최종 방류수의 총 질소농도는 법 기준이 60mg/l 이하이지만 포스코의 경우 2000년 51mg/l, 2007년 11mg/l,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2mg/l를 나타내는 등 주요 대기 배출물에 대해 지속적인 저감 양상을 보여 환경개선활동 성과를 증명했다.

포스코는 2009년 12월 글로벌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협의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18년까지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에 7조 원을 투자하는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신문(6/24, 제8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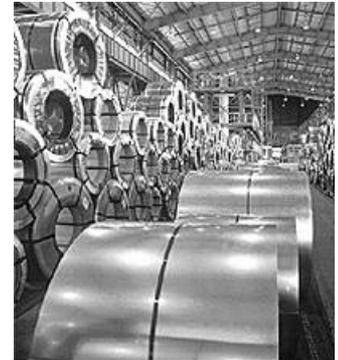
해외 철강 단신

중국 상하이보강, 생산능력 확대

중국 최대 철강기업 중 하나인 상하이보강은 생산능력을 2012년까지 5000만 톤으로, 이후 2015년까지 66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저장지역에 새로운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에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일관밀을 착공한다. 또한 저장지역 제철소 생산능력을 2015년까지 2000만 톤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철광석 자급률도 2015년까지 6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생산능력 확장과 원료 자급률 확대는 중국 정부의 철강기업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에싸르, 영국 서보스틸 인수

인도의 판재 및 강관 제조업체인 에싸르스틸은 영국 최대의 박판 가공업체인 서보스틸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는 에싸르의 글로벌 유통전략 재편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보스틸의 연간 생산능력은 50만 톤이며, 열연강판, 냉연 및 표면처리 강판을 절단하여 자동차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에싸르는 인도·캐나다·인도네시아에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강능력은 860만 톤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에 7개의 서비스센터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공능력은 연간 300만 톤 수준이다.



**브라질 우지미나스, 철광석 증산** 브라질 철강사 우지미나스의 자회사인 우지미나스 미네랄은 2015년까지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철광석 생산능력을 현재 700만 톤에서 290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이 회사는 세라 아줄 광산에서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광산의 매장량은 26억 톤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지미나스 미네랄은 9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능력 700만 톤 규모의 펠릿공장, 6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3000만 톤 수준의 철광석을 운반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대만 철강제품 중국 관세 인하

대만과 중국 정부의 경제협력기본협정 합의에 따라 대만산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대만산 열연·냉연·전기도금 강판 등 10여 가지 탄소강 제품과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등 12가지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철강제품 수입관세는 3~8%이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관세를 5% 미만인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관세를 5% 이상인 제품은 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협약은 201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포스코 신문(6/17, 제823호)

글로벌 이슈 - 2010 SBB 그린 스틸 서밋

국제 환경규제는 '위험' 아닌 '성장의 기회'

지난 5월 20~2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2010 SBB 그린 스틸 서밋(2010 SBB Green Steel Summit)은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뉴코어 등 다수의 철강사 대표들과 자동차, 건설 등 수요가협회, 그리고 정부와 컨설팅기관 등 관련업계 인사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본 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참가한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철강산업에 있어서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le in the Global Steel Industr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에 글로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린 철강수요에 대한 철강사의 대응, 원료공급 측면에서 친환경 산업화, 환경 규제에 따른 철강시장의 반응, 환경관련 철강기술 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이슈를 간추려서 짚어본다.

철강재, 경쟁소재 대비 우수한 친환경 소재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있는 철강재는 대략 2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제품의 평균 사용 연한은 40년 정도이며, 철강제품의 재활용률은 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철강제품은 알루미늄, 시멘트, 플라스틱 등과 같은 경쟁소재에 비해 가장 우수한 친환경 소재인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철강에 비해서 제품 생산 시 각각 5배, 10배 이상의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es)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철강계 GHG 감축 성과 불구 원가부담 가중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그동안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GHG 감축에 큰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이래 이산화탄소(CO2)를 20% 감축했고 미국 철강업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33%의GHG를 감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은 GHG 배출산업으로서 환경 규제에 의해 산업 내·산업 간·국가 간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래에는 환경 규제가 철강설비 투자와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기회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철강 1톤당 2톤의 CO2를, 전기로 사업자는 0.5톤의 CO2를 배출하는 만큼 원가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철강사들 대거 참여 향후 환경관련 논의 뜨거워 철강업계,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불구 원가부담 가중 예상

아르셀로미탈, 중장기 친환경 전략 추진

아르셀로미탈은 CO2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증대, 새로운 혁신소재 및 제철기술 개발, 리사이클링 최적화 등의 친환경 철강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환경부문에 2억 2400만달러, R&D 부문에 2억 53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8% 감축(철강 1톤당 CO2 170kg에 해당)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에너지 효율, 프로세스 개선, 원료배합등 350여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철강기술의 CO2 배출 감축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른바 획기적인 CO2 감축 철강기술인 ULCOS(Ultra Low CO2 Steelmak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U의 주요 철강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ULCOS를 통해 2050년까지 CO2를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진 철강사, 기술력 앞세워 시장 선점 우려

세계 철강산업의 판도가 물량에 있어서는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되고 있지만 미국, EU 등 선진국 철강사들은 친환경 제철기술 개발, 친환경 철강 프로세스 및 컨설팅 서비스, 스크랩 등 친환경 소재의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철강사들은 철강재와 같은 글로벌교역재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 규제가 적용될 경우, 철강무역에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개도국 철강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환경 규제와 친환경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선진국 철강사와 관련업계에서의 논의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선진국 철강사들은 미리 환경 규제를 받고 이에 대처하면서 얻게 된 핵심 노하우와 친환경기술을 무기로 관련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친환경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환경 이슈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GS칼텍스 여수에 `지상 유전` 세웠다

(2조6천억 투입 국내최대 고도화설비...찌꺼기 초중질유로 휘발유·등유 생산)

GS칼텍스가 값싼 중질유를 부가가치 높은 석유제품으로 바꾸는 국내 최대 규모 `지상 유전`을 완성해 9월부터 상업생산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 2007년부터 추진해 온 3번째 고도화설비인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HCR)의 기계적 준공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용수, 전기, 스팀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유틸리티시설은 지난 5월 말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다.

핵심설비인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을 비롯해 황회수시설, 수소제조시설, 저장 및 출하시설은 이달 말부터 시운전할 예정이다.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은 총 투자비 2조6000억원, 용지면적 61만5000㎡(약 18만6000평), 공사기간 21개월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GS칼텍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며 국내 석유업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최대를 자랑한다.

특히 이 설비는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설비이며 세계적으로도 7번째 적용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기존 국내에 도입된 고도화설비의 경우 벵커C를 원료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하는 설비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GS칼텍스가 완공한 고도화설비는 벵커C보다 값싼 원유정제과정의 찌꺼기인 초중질유를 원료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 청정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이를 `지상유전`이라고 부른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값싼 중질유리의 도입비중을 높일 수 있어 원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값싼 초중질유를 값싼 친환경 경질제품으로 전환·판매할 수 있게 돼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GS칼텍스는 이 설비 완공에 따라 고도화처리능력이 기존 하루 15만5000배럴에서 21만5000배럴로 늘어 국내 최대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이번 투자는 변화하는 석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 아시아에서 배럴당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경제 2010.06.22 [문일호 기자]



GS칼텍스는 22일 단일 설비로는 국내 석유업계 최대인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HCR)을 준공했다. 총 2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 설비는 시험운전을 거쳐 9월부터 상업생산에 시작한다. 사진은 전남 여수에 자리잡은 VHCR 전경

## 시멘트업계 '삼중고'

(건설계열사는 워크아웃 ... 판매 줄고 미수 쌓여)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업계에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토목사업과 민간주택사업이 줄면서 시멘트 출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건설분야 계열사 및 관계사들의 잇단 워크아웃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 결과 현대시멘트의 성우종합건설과 한일시멘트의 한일건설이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됐다.

특히 성우종합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시멘트도 성우종합건설의 부실로 인해 지난달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현대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은 수도권 일대에서 미분양에 시달렸으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현대시멘트는 7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성우종합건설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 결과 현대시멘트는 올 3월말 1만2000원이 넘는 주가가 28일 629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일시멘트도 지난 3월말 7만1500원이던 주가가 한일건설의 워크아웃행이 발표된 후 28일 6만900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일시멘트의 경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영향이 제한적이다.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현대시멘트와 달리 한일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에서는 건설사를 계열사나 관계사로 두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외에

동양시멘트(동양메이저 건설부문), 유진기업(유진기업 건설부문), 한국시멘트(남화토건), 유니온(이테크건설)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시멘트나 한일시멘트의 건설계열사 부실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까 경계하면서도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부실채권까지 쌓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단가 인상을 준비했으나 미수대금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영업을 통한 판매보다는 채권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관계사 문제가 시멘트업체로 확대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경제 2010-06-29 오승완 기자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원자재 시장

포스코 열연 5만원·냉연 5.5만원 인상

- 3분기 계약분부터..철광석 등 원료탄 가격상승이 원인
- 원가상승폭 10만원 넘지만 절반 자체흡수
- 비수기 돌입..최중수요가에게 인상분 반영여부 불확실

포스코는 열연강판 가격을 3분기 계약분 부터 톤당 5만원, 냉연강판을 톤당 5만5,000원 인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의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90만원, 후판은 95만원, 선재는 94만원, 냉연강판(CR)은 102만원, 용융아연도금강판(GI)은 112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포스코는 2분기에 열연 17만원, 냉연도금제품 18만원이라는 큰 폭의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철광석, 석탄 등 원료탄의 가격상승 때문이었다. 이번 3분기 추가 인상한 이유도 원료탄 가격상승 때문이다.

현재 포스코는 철광석 및 석탄 공급사와 3분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로 철광석은 전분기비 25~30%, 석탄은 10% 초반대 수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환율 상승까지 감안할 경우 포스코의 원가상승폭은 10만원을 넘는다. 포스코 측은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은 3분기 원료가격이 2분기 대비 평균 20% 이상 인상되어 톤당 11~12만원의 철강제품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주요제품의 국내 수입가격이 40~50달러 정도 높아 가격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원가상승폭의 최대한을 흡수해 3분기 인상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최저인상폭인 열연 6만원보다도 적은 5만원 인상에 그치면서 포스코는 원가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3분기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포스코의 가격인상이 완료됨에 따라 타 철강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냉연사들은 포스코의 가격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강관사들도 포스코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의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생산하는 열연, 후판 제품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조였던 자동차와 가전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고,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인데다 철강재 바닥시장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철강사들이 가격인상분을 수요가들에게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틸데일리 2010-06-22일자 기사 요약

포스코 가격조정표

단위: 전원

	현행	조정	현행대비
HR	850	900	50
후판	900	950	50
선재	890	940	50
CR	965	1020	55
GI	1,065	1,120	55
주물선	700	730	30

H형강 시장 "지켜야한다 vs 대안 없다"

- H형강 유통가격 천차만별...저가는 저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H형강 유통시장의 수요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업계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H형강 유통업계는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는데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대안이 없다'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측은 어차피 가격을 인하여 손해를 보면서 판매해도 수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H형강 수입시장에선 사이즈 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계약도 급감해 조만간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에 H형강 가격도 반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안이 없다는 측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가이라도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7~8월 비수기 이후에는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기간을 견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중 H형강 유통가격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산 H형강의 저가 제품은 소형기준 톤당 82~83만원 수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은 톤당 85만원 이상에도 가격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입산 H형강도 저가 제품은 톤당 70~72만원 수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톤당 80만원 이상의 가격은 되어야 한다며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스틸데일리 2010-06-28 요약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STS 가격 혼조세 언제까지 갈까?

- 월 마감 앞두고 일부 업체들 저가판매 유지
- 다음주 유통價 안정세 보일 수 있을지 이목집중

관련업계는 포스코의 7월 출하분 가격인하 발표 이후 유통가격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의 월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이 중구난방인 점과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저가판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조 현상은 이번주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주 중국 대만 등의 오퍼 가격 및 시장 추이와 니켈가격 추세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통가격이 안정세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304 열연의 경우 kg당 3,400~3,500원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304 냉연의 경우 2T 기준 3,500~3,600원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냉연을 3,700원까지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격형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월 마감을 앞두고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런 모습은 올해 내내 나타났던 현상인데 하락국면에서 이런 상황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 대리점들이 가격을 낮게 내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여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음주에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불안한 감은 있지만 니켈가격이 받쳐준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스틸데일리 2010-07-01기사 요약

## 환율시장

### 7월 원달러 환율 1,180~1,260 원 전망

7월 환율은 유로존 우려가 재점화되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외국인 원화 자산 매입 자제와 7,8월 수출 비수기 및 해외여행 성수기로 인한 국내 외환 수급 악화로 환율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원 일간 Chart(by Reuters)



남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3분기 내 금리인상이 급부상할 정도로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유지되었으나,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및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작년부터 누적되어 온 외국인의 과도한 원화자산 매입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원화자산 매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경상수지는 90~100억 달러 흑자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7,8월 외환수급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8월은 수출 비수기에 해당돼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외여행 성수기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신종플루와 환율 급등으로 해외여행이 급감한 반작용으로 올여름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고 그리스의 5월 초 구제금융 이후 첫 국채 발행, EU의 역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등 유로존 관련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이라는 국제공조가 각국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국제 외환시장 역시 각국의 차별적 여건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7월 미달러는 유로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지지력을 나타내겠으나,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달러 과매수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 상승도 쉽지않은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유로화 급락으로 달러인덱스가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어 달러인덱스보다 통화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로/달러는 유로존 약재 부각시 1.20달러 하향 테스트가 예상되나 과매도 인식 속에 급락보다는 1.20~1.2450달러의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약세 압력, 일본의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에 따른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는 달러/엔 낙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 환율은 5월 환율 급등에 따른 조정양상이 나타났으나 61.8% 조정 레벨인 1170원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뒤 재차 1200원대로 올라섰다.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감안할 때 하반기 달러/원 환율은 5월 중 돌파한 115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점진적 재정 지출 축소 속에 자생적 경기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출구전략 이행,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국제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어 하반기 여건은 상반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의 환율 급등은 외국인의 과도한 원화자산 매입에 따른 손절성 달러 매수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 여건이 환율 상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경우 가장 불안해 할 주체는 외국인이다. 6월 원화 가치 회복이 다른 통화에 비해 부진했던 것도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원화자산 매입에 대한 부담을 반증한다. 외국인의 원화 포지션 탓에 원화 저평가가 유지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향후 환율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매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1160원으로 올라온 20주 이평선이 1차 지지선, 6월중 저점인 1170원이 2차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20개월 이평선인 1250 원이 1차 저항선, 전고점 부근인 1280원이 다음 저항선으로 예상된다. 7월 환율은 1180~1260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 여기서 잠깐

[6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6월 환율의 예상범위는 약 1,150~1,250원이었고 이는 신뢰성이 있었다. 유로존 약재와 선물환 규제 우려로 고점을 형성한 후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위안화 유연성 확대로 급락하며 1160원대 진입. 이후 미 경기 둔화 우려와 미 금융규제안 우려 등 대외 불안 요인 지속돼 1200원 중심의 변동성 장세 지속한 후 전월 말 대비 16.50 원 상승한 1219원에 마감되었다.

출처: 삼성선물 2010.06.29 7월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기 KC Cottrell 인턴사원입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개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신지훈 / 홍익대 / 전자전기공학 / 해외사업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KC코트렐! 세계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웁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해도 이런 심각한 문구밖에 내놓지 못하는 진지함. 그 진지함 속에 팔색조 같은 매력을 숨기고 있는 남자.



**전지호 / University of Bath / 기계공학 / 발전민수사업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환경 산업.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영국의 세련됨과 한국의 수수함을 겸비해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설피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승부하는 남자이고 싶지만 아직은 어린 갈 길 먼 남자.



**조윤동 / 중앙대 / 경영학 / 기획/지원팀**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아직은 모르고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꼭 제 몫을 하고 싶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요리?  
정통 군대요리를 완벽히 구사하는 가정적이고 싶은 남자.



**정동섭 / 한양대 / 기계공학 / 제철사업부**

배관에 매력을 느껴 실력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계공학도.  
'시저의 야망이 아닐 바에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처럼 승부근성을 가진 열정의 소유한 남자.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김영조 / 홍익대 / 화학공학 / 제철사업부

인턴 멤버 중 가장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 아니 심각하다. 그의 인생 굴곡에 비하면 롤러코스터는 장난 수준? 하지만 그 굴곡에 좌절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진취적인 남자



Miquel Aragones / Quinic Institute of Sarria / 경영 / 태양광사업팀

입을 열기 전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할 스페인 귀공자.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빛을 발하는 유머감각. 하지만 그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큰 인내가 필요하다. 언어의 장벽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